

부처님을 알고 나서

최정숙 (인천 부평구 부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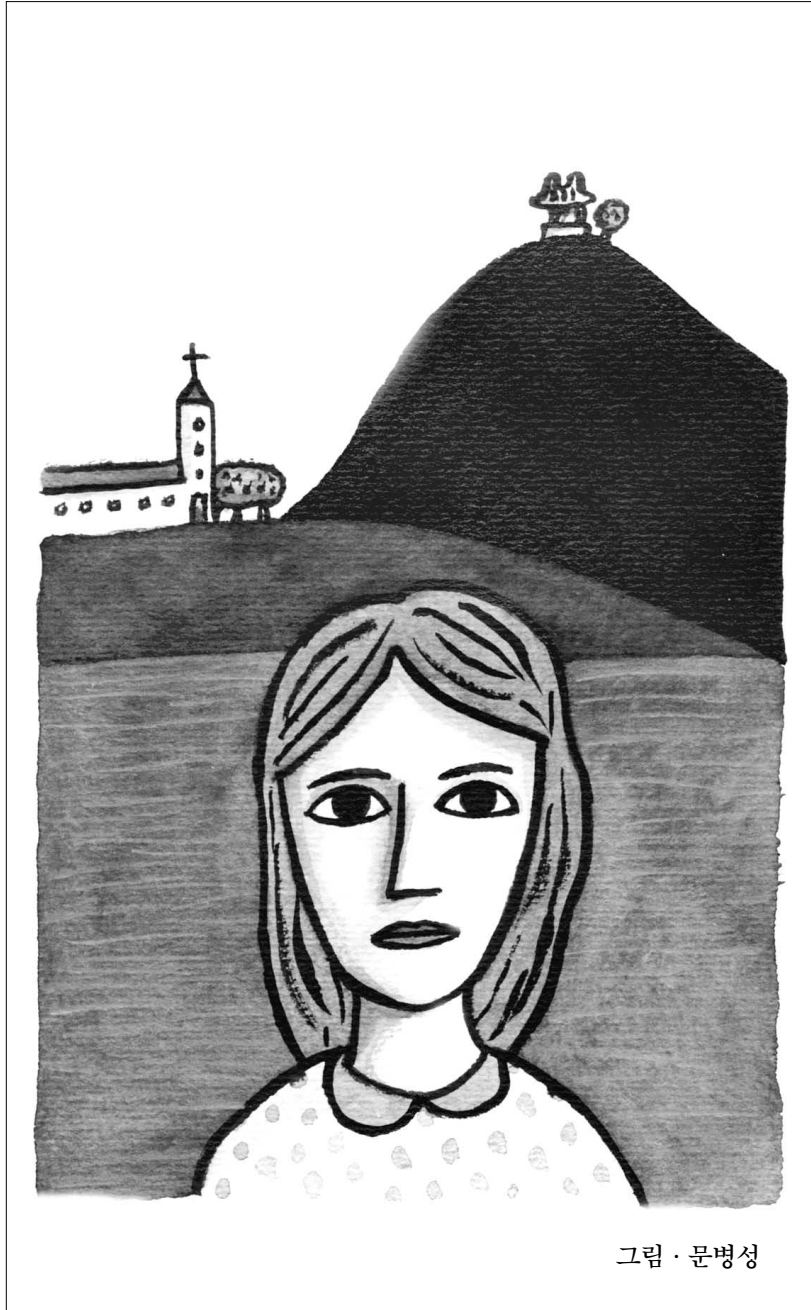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언제부터인지 부처님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온다. 만약 지금 부처님이 살아 계시다면 천리길이라도 한달음에 달려가 만나 보고 싶다. 그래서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을 모두 다 여쭙고 해답을 구할 수만 있다면...

확연히 깨쳐서 지혜롭게 살 수만 있다면 어떤 고행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 있다. 어떻게 해야 깨칠 수 있는지, 아니 아직도 나와 남을 분별하고 있는 미혹한 중생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을 것만 같다.

26살에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종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시택에 들어가서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목실한 천주교인이셨고, 5형제 자식 중 한 사람이라도 천주교 성직자가 되길 바라셨다. 하지만 어느 자식도 그 뜻에 따르지 않자, 시어머니는 나에게 천주교식의 결혼식인 혼배성사를 받도록 했다. 시아버지께서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며 시어머니를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동안 여러 번 성당엘 가셨고, 나 역시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여러 차례 성당엘 갔다. 하지만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성당 안에 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와 성당 근처 목방에 우두커니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오후 4시쯤, 시어머니는 저녁을 빨리 먹고 성당에 가고 재촉을 하셨다. 하지만 성당에 가고 싶지 않았던 나는 녹장을 부리며 발상을 차리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자 화가 난 시어머니는 발상을 뒤집어엎으셨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감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성당에 가

면 분위기는 장엄하지만 신부님의 말씀에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강요받으면 오히려 반발감만 생겨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뜻과는 달리 성당에 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나 역시 마찬가지니 시어머니께서도 어쩔 수 없었던지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그때 성당에 가자"고 하시면서 뜻을 굽히셨다.

그 뒤 남편이 강릉으로 발령이 나면서 강릉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천주교인 2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시어머니께서 내 교적(성당 신도 명부)을 강릉의 한 성당에 보내서 오게 된 것이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성당에 나가게 하겠다는 마음을 접지 않으신 것이다.

생애와 사상, 교리 등 타치는 대로 배웠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했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재미도 들어 정말 신나게 공부했다.

배우면 배울수록 깊이가 있고 과학적인 것이 불교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불교의 우주관이나 생사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연기법은 너무도 훌륭한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불교계 언론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도 바로 이때였고, 새벽예불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경전공부를 시작한 것도 이 때였다.

어떤 때에는 잠이 부족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경전 공부를 하려고 밤새 라디오 불교방송에 귀를 기울였고, 예불을 하면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

나중에는 동생들까지 모두 데리고 갈 정도가 됐다. 사실 아이들에게 짤레 갈 것을 은근히 요구했는데,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반성을 한 적이 많다. 잘못하다가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불교를 더 싫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이들에게 더욱 조심스러웠다. 이런 엄마의 생각을 눈치 챘는지, 아이들은 오히려 내게 고마워했다.

이런 것이 공부고, 이런 것이 연기법이라고 생각하니 부처님 법이 그렇게 고맙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신생활이 이어졌지만 초보해 보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해 보고 싶은 욕구가 일었다. 그러던 차에 한 도반으로부터 삼천배 철야정진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한 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다. 다리가 너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할 정도가 되면서 말로만 들던 삼천배 철야정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몸은 내 몸이 아니었지만 정신은 더욱더 뚜렷해진다는 것이었다. 처음 2천배 동안 절을 할 때마다 되새겼던 서월은 2천배를 넘어서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내가 있음이 느껴졌다. '수행이 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환희심이 일어났다.

지금도 첫 삼천배 철야정진은 잊혀지지 않는다. 평생을 살면서 그 때처럼 기쁘고 환한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부처님 법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부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시어머니의 종교 강요에 반발감만 생겨

우연히 법회 참석 후 '아! 이거구나' 귀 번쩍

새벽예불 경전공부 열심 삼천배 정진도

나는 그 신도들에게 내 뜻을 분명히 전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 드리지 못해 죄스럽기는 했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갑자기 절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한 점을 찾았다. 과연 절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마침 내가 절에 간 날은 법회가 있는 날이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지만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가 번쩍 뜨였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찾던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확신마저 들 정도로 스님 법문이 강력하게 다가왔다.

돌아볼 것도 없었다. 주저 없이 부처님께 귀의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때부터 부처님

을 오만만 행동으로 남을 무시했던 일, 미워하고 원망하고 슬프고 가슴 아팠던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엔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그렇게 무지와 집착의 업으로 보낸 많은 날들을 참회하면서 비우면서 내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결심이 섰을 때는 참으로 출가분한 마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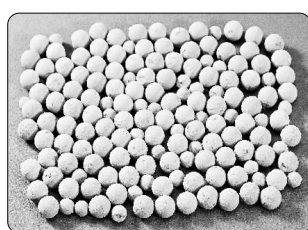
다행히 아이들도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큰 아이를 해인사 수련회에 보냈더니,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하여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편(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쾌한속면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배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아에다 수돗물을 받아 붓어를 넣으면 붓어는 배를 뒤집고 활짝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붓어는 씩씩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당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억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항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타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해동 06-32호

공 고

송원사 / 정인식(해공) / 경남 김해시

상기인은 본 종단 중헌종법 제3장 8조 3항, 9항에 의거 체탈도침 되었음을 공고함 (2006년 10월 16일)

2006년 11월 20일

석단 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제5기 학인 모집

본 회에서는 전통 영남 범음·범패를 수련하고자하는 제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 기초반 : 각단 예불 및 사시불공의식
- ◆ 중급반 : 각종 재의식 (사물다루는 법)
- ◆ 고급반 : 바라 및 승무작법

기 간: 2006년 11월27일(월요일)부터 (6개월 과정)

일 시: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수강료: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경남 진주시 봉곡동 474-5

불음원(한주 아파트 옆)

연락처: 055)745-8419

섭함 영남 범음·범패 연구 보존회

이사장 한 파 합장
강 사 원 명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053)964-0858

휴대폰: 011-804-1748

현공풍수 양택사(陽宅師)과정 모집

... "뜻 있는 곳에 성공이 있다" ...

- ◆모집인원 : 50명
- ◆강의일정 : 12주 3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 ◆개 강 일 : 2006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 ◆강의내용
 - ※ 현공풍수의 이론에 입각한 양택 (주택, 아파트, 공장, 사무실, 관공서 등)의 부지선정, 건물의 배치, 좌향, 풍로, 방문, 가구 및 집기 등의 배치방법, 현장실습5회 이상 실시
- ◆수 강 료 : 30만원
- ◆문 의 처 : 담당교수
 - 곽민석 011-758-7630
 - 박상건 011-246-1079

◆특 전

- 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전국풍수지리통일학회 평생회원
- 풍수 양택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신지식 보수교육
- 대만, 홍콩, 중국, 일본 양택사와 교류

중앙대학교 위탁교육기관

중앙 HRD 교육원

전국 풍수 지리 통일 학회